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추가 이벤트! 이벤트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볼펜**을 증정해드립니다.



NEW



ColorEdge CS2731

QHD 27" (2560 x 144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USB Type-C | Adobe RGB 99% |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2종 증정!



NEW EIZO 전용 캘리브레이션 센서 EIZO EX4 +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H2700

SALE 1,980,000원



FlexScan EV2430

디자이너를 위한 눈이 편안한 모니터
FHD 24.1" (1920x1200) | 페이퍼 모드 | 플리커 프리

EVENT 사은품 1종 증정!



Calibrating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H2400

SALE 550,000원



ColorEdge CS2420

FHD 24.1" (1920x120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Adobe RGB 99% |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2종 증정!



NEW EIZO 전용 캘리브레이션 센서 EIZO EX4 +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H2400

SALE 1,320,000원



FlexScan EV2760

디자이너를 위한 눈이 편안한 모니터
QHD 27" (2560x1440) | 페이퍼 모드 | 플리커 프리

EVENT 사은품 증정!



Calibrating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CC Display

SALE 990,000원



NEW



calibrating
ColorChecker

Passport Photo 2

- 휴대가 간편한 여권 사이즈 컬러 타겟
- 클래식 / 인핸스먼트 / 화이트 밸런스 / 그레이 밸런스 타겟

SALE 132,000원



2021 포토마트 프로모션

☀ 8년 연속 최우수 판매업체! 2년연속 최우수 서비스 업체!

PHOTO PRINTER 업계 최대 할인 !!

- 최저비용
- 편리한 유지보수
- 선명한 출력품질



SL - D860
미니랩 고속 프린터



SC - P904
포토그래픽 A2 프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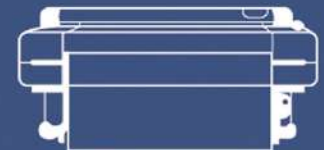


정품무한 L805

Epson Print Repair Service

원격지원 / 엔지니어 출장 / 유일한 지역별 서비스 담당 배치

고객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배치하여 빠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님의 편의와 만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of Photo'

PHOTOMART

포토마트는 국내 최고의 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출력, 앨범, 액자를 생산·조립하고 포장·배송까지 직접 포토마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며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아크릴 시스템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 !!

'압착 롤러 방식'으로 아크릴을 이용해 즉석에서 액자부터 약세서리까지 '누구나 손쉽게' 제작 가능합니다.



▶ 아크릴 장비로 제작 가능한 포토마트 액자

일부 몰딩을 자체 생산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빠른 재료 공급! 효율적인 생산! 철저한 품질까지 보장!!
포토마트만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몰딩으로 오랫동안 사진을 아름답게 간직하세요 !!



어반AF



레이저목판



자작



디아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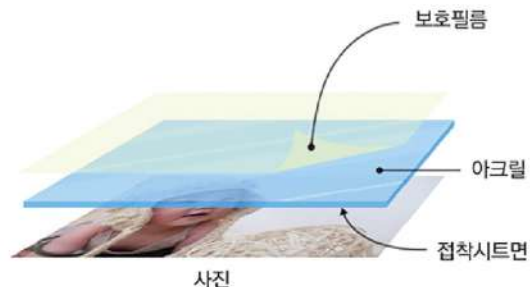
원목관



스마트

▶ 아크릴 직접 재단

아크릴 두께, 사이즈, 모양 구분없이 원하는 대로 레이저로 커팅하여 액자 뿐 아니라 다양한 약세서리까지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포토마트에서는 반재 판매 및 제작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창조적인 기업 **출업앨범제작**

디지털인쇄기 :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도입
4COLOR 매엽기: IR코팅 RMGT 10 도입



| 주 | 서인프린텍

SEO IN PRINTECH Inc.

Evolution Album

Innovation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기보다 미래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Design, Print, Binding



보유장비
현황

CTP 및 출력시스템

전자동화로 시간당 40장 출력이 가능한 최신 기종
세계 특허 망점기술인 Squarespot TM(사각망점) 기술을 채용

옵셋인쇄 시스템

4COLOR매엽기(1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3000S
4COLOR매엽기(2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2000
5COLOR매엽기(3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3000
4COLOR매엽기(4호기) : IR코팅 RMGT 10

디지털인쇄 시스템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시간당 3450매 4/0
최상급 품질 컬러 인쇄 이미지 해상도: 8비트에서 812dpi

제본설비

무선라인 : 요시노 무선 온라인
중철기 : 최대 5콤까지 가능 일본 OSAKO MODEL - TENER 2548
접지기 : 스탈접지기 4대, 호리존 16P접지기 1대, 스탈라운드(지도접지) 1대
재단기 : 컴퓨터 유압재단기 4대



서인프린텍은 접수에서 납품까지 최신장비 및 축적된 실무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합니다.

- 원고 및 파일접수
- 색보정 및 디자인 작업
- PDF 변환, CTP 출력
- 옵셋인쇄 or Digital인쇄
- 제본 작업
- 사용자 납품



디지털인쇄기 :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도입



4COLOR 매엽기: IR코팅 RMGT 10 도입



다채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표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서인프린텍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43 (우아동 3가)
 대 표 (ARS) 063 710 0590, 앨범사업부 010-9473-2126


앨범사무실(TEL) 063 710 0590~1 (FAX) 063 710 0599 앨범디자인실(TEL) 063 710 0580~1
 (Homepage) <http://ditec.kr> (E-mai d0570@hanmail.net Webhard d0570 / di1234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BE THE REVOLUTION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대전 캐논 스토어 온라인 Mall 오픈!!!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 (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프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1인 복음선교방송 크리에이터과정

미디어 선교사

양성과정 수강생모집

스마트폰 활용교육

스마트폰의 최신기능
앱을 활용한 SNS선교콘텐츠
모바일전도법

유튜브 활용교육

온라인예배의 모든것
녹화방송 .실시간 방송
촬영에서 편집까지

대 상 신학생 . 개척교회목회자 .
온라인예배 방송준비하시는분

교육비 기초과정 / 25만원

교육기간 2022. 12월3일 10일 17일
매 주토요일 13:00~17:00시
(4시간수업) - 총12시간

교육장소 총회신학 6층 강의실 (사당역5번출구)

교육문의 1522-4496

온라인 방송을 위한 필수교육

주최: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신학

주관: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강좌내용 (초급과정)

COURSE CONTENTS

제1차시 제1~2강

스마트폰 기능과 활용방법
환경설정.사진.영상

제2차시

제3강

줌의 활용 참가자 관리자 실습

제4강

유튜브채널개설과 사용법

제3차시 제5~6강

OBS실시간 방송기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밴드. 실시간 라이브방송기술

선교방송교육생 모집

업계 최초! 사전시안제 실시!

사전시안제란?

고객님이 의뢰하신 작업을 대금결제전에 미리 복원작업 등을 진행하여 보여드린 후 완성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전송

사전
시안

대금
결제

작업
완료

영정사진 1시간내 작업



고화질 영정사진

선명도 작업, 다양한 의상합성, 이미지보정



초상화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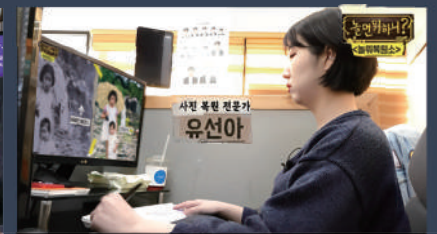
사진합성



스튜디오다빈치 TV출연 유재석님과 MBC놀면뭐하니 외 10여개 방송 출연

MBC놀면뭐하니 (첫번째 출연 2019. 9)

MBC놀면뭐하니 (두번째 출연 2022. 12)



스튜디오다빈치 032)426-3123 / 010-6324-27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9 진영프라자 1층



사진예술 Master과정 연구강좌

윤슬사진촬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진수업의 완벽한 지름길

“좀 더 사진을 잘 찍고 싶다.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이 모든 사진작가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사진기술 전문가 김정대 와 함께 작가의 열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강좌” 로 주 1회 14주 과정이며, 회당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21세기 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최고테크닉 기법과 이론, 실습을 통한 철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색 관리, 촬영, 포토샵으로 이어지는 프로사진가를 위한 내용이며, 전시를 위한 작가들을 위해 작품, 도록, 액자, 전시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평범함을 넘어서는 사진예술작품을 꿈꾸는 사진작가” 를 위해 다양한 기법과 이론, 실습을 통한 철저한 교육으로 초대합니다

윤슬사진촬영연구소 원장 김영훈

교육안내

1. 모집인원: 10명 이내(선착순 마감)
2. 교육과정: 주 1회 14주 과정(회차당 4시간 교육)
3. 수 강 료: 2,000,000원
4. 전화(문의): 010-9072-0011, 031-574-0020
5. 주소: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419-88
6. 입금계좌: 국민은행 631601-01511647 김영훈

강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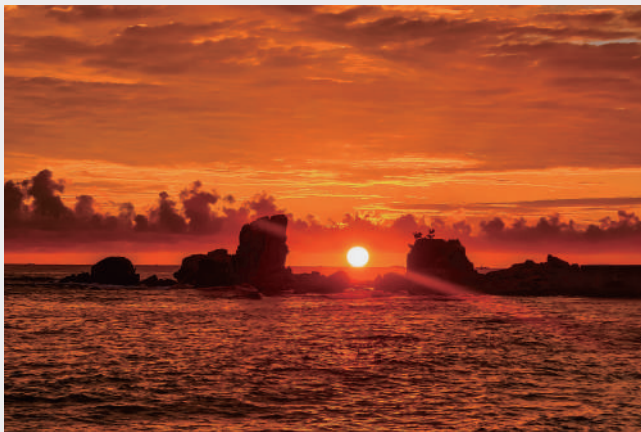
Look & Feel Studio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 위원장
 삼성, LG, 펜텍엔큐리텔, 엠텍비전 연구원 교육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세미나 강의 다수
 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KPPA) 교육 위원장
 전 중앙대 지식 산업 교육원 인물 콘텐츠 과정 강사

회 차	과 목	주 제	
1	Color Management System (색관리)	C.M.S 개론	컬러기초, Monitor, 광원, Software 색설정
2		Monitor Profile 작성	Monitor/Camera Profile 작성이해, 각 단계 설정 및 검증
3		Printer Profile 작성	Printer 이해, 출력 설정, 컬러 판독 이해
4	Lighting	조명학 개론	기초 조명, 각종 조명 장비 이해
5		조명 실습 1	Key, Fill, Top 개론과 실습
6		조명 실습 2	Back, Eccent, 개론과 실습1과 통합
7		인물, 제품 조명	인물, 오브제 조명 실습
8	Raw & Photoshop	야외 조명	야외 촬영과 조명 실습
9		사진 선택과 장기보존	사진 태그 및 등급, 효율적 관리, 보존
10		Raw Processing 1	도구 및 탭 이해와 분석, 활용
11		Raw Processing 2	Raw 응용하기, 톤 분리, 미세 조정
12		Photoshop 1	조정 도구 이해와 분석,
13		Photoshop 2	각종 특수 기법 응용, 미세 마감 리터칭
14	Display	Printing & Exhibit	프린트, 용지, 도록, 액자 목재 및 유리 종류, 보존

PRO **portrait** coverstory

1

2023 JANUARY
VOL. 540



- 작품명 : 스몯개바위 일출
- 작가소개: 정세화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총무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에 아름다운강 공모전 동상
 - 경기도 들꽃사진공모전 은상 (경기도지사 상 수상)
 - 토종닭 공모전 대상 수상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옥기
발행일 : 2023년 1월 1일
창간일 :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우)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代), FAX. 02)4545-608

Homepage: <http://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Webhard :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편집위원

고 문 : 박성열
홍보 위원장 : 나영균
기획 위원장 : 한장훈
협회주재기자 : 이해승
인 쇄 : (주)서인프린텍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발행인 메시지	15	초심(初心)으로 계묘년(癸卯年)의 해를 맞이 하자.
신년사	16	박성열 / 김선식 / 최승재 / 이상헌
KPPA's 인상사진 작가전	20	가족사진_박금서 / 일곱난쟁이_천우철 The spirit of sword man_홍기채 / 사단초대석_고삼석
KPPA's EDU	24	사진복원 스토리 / 김충식
	25	밤낮이 바뀔 때 우리 뇌는 / 정지윤
	26	그래도 열심히 인내하는 수 밖에 / 임만준
	28	포기하려 할 때 일으켜준 분들 / 김도형
	30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의 탄생 / 신현국
	32	마음이 열리는 문화탐방 / 최정선
KPPA's 국제세미나 촬영대회	34	국제세미나촬영대회 심사결과
KPPA's 추천작가 촬영대회	41	추천작가 촬영대회 심사결과
KPPA's 울산지회	48	울산지회 심사결과
KPPA's 강원지회	54	강원지회 심사결과
KPPA's 호남권	58	호남권 심사결과
KPPA's 경북지회	63	경북지회 심사결과
KPPA's 기재탐방	68	나의 목표 카메라 박물관 / 이승호 대표
KPPA's 지회 작품전	70	서울지회 / 부산지회 / 경기지회
KPPA's 순수사진 작가전	76	해미읍성의 아침_권혁만 / 가파도 해녀_김동민 / 단정학_김선식 차밭 설경_김현호 / 일출_이용일 / 겨울꽃_이정휘 아름다운 서울_정세화
KPPA's NEWS	83	작품심사
	84	제4차 이사회의 및 지회장 연석회의
	86	성철현 고문 산업훈장 수상
	87	제30차 서울특별시지회 대의원 정기총회
	88	제4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
	90	부산지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지회장취임식
	92	광주지회 2022년정기총회-사단지 보도자료
	94	경기지회 제34대,35대 지회장 이취임식
	95	순천시지부 조례안 통과
	96	가평군 북면 행복마을 어르신 사진촬영 봉사활동

초심(初心)으로 계묘년(癸卯年)의 해를 맞이 하자.



회장 정 옥 기
(사)한국프로사진협회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2022년은 어느때보다 국내외적으로나 우리 협회에 있어서나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회원 여러분들이 뚝뚝 뭉쳐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오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 전 처음 협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도전, 행복한 동행”이란 슬로건으로 협회의 정체성과 내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왔습니다. 목적사업 가운데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으며 현재 진행형 사업도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만나고 싶어도 코로나라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 좌지우지되어 세미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여수에서 회원들과 오랜만에 만나 정을 나누고 함께 술 한잔하며 보낸 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전국 지회의 이·취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38대 각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및 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대 지회장 및 사무국장님들은 신임 회장님과 함께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도 단합하고 화합하여 새 집행부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바쁘게 보낸 만큼 2023년에 맞을 변화와 성과에 대한 기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초심(初心)으로 계묘년(癸卯年)의 해를 맞이합시다. 2023년 새해에는 모든 회원이 화합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지부와 지회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회장 정옥기

선배 제현이 물려준 “사진회관”을 계승 발전시키자.



고문 박 성 열

코로나로 만신창이가 된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대망(待望)의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다. 국가 경제가 휘청이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늘고 급기야는 명동이나 이태원 상가에서도 몇 집 걸러 거미줄 친 빈 점포가 보일 정도로 상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주(宇宙)에 사람을 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인류가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의 습격에 몇 년씩이나 허둥대고 있는 모습은 21세기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와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업계에도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미치면서 설상가상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회원 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화와 협회로 이어지면서 60여 년의 협회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회적 한파가 휘몰아치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일찍이 우리의 선배 제현들이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건립한 사진회관의 존재감이 새삼 크게 느껴진다. 협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60년대 초에는 협회 재정이 취약하여 서울 시내 곳곳으로 옮겨 다녔고, 임대료가 밀려 닫혀진 문 앞에서 분루를 삼키며 발길을 돌려야 했던 임원들의 절박함이 사진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승화시키는 동력이 되면서 10여 년에 걸친 건립 운동 끝에 1993년 12월, 대망의 꿈을 이루고 회관 입주식에서 너무나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선배 제현들의 그 결기와 열의로 사진계 최초로 건립된 사진회관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사회적 장기 한파의 외풍을 막아주며 협회가 구심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람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선배 제현들에 의해 어렵게 구축된 요람 '사진회관'을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책무가 이 시대 사진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새해를 맞아 회원 각자의 사진관에서, 임원의 위치에서, 직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협회 구축을 위해 십시일반 노력을 보태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어려운 시기에 협회 운영을 맡아 출범하는 제39대 권용욱 신임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장도(壯途)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고, 이임하는 제38대 정옥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한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협회(協會)를 중심(中心)으로 하나가 되자.



39대 감사 김 선 식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진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님과 임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길드는 바로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길드는 중세 시대 때 활발히 성행했다. 수공업길드, 상업 길드 등이 그런 예이다. 현재에는 게임에도 길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 한국프로사진협회도 사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위하는 길드라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몽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몽친다는 것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몽친다는 것을 바로 학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는 것은 몽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것도 배우며 서로 가르치기도 한다. 또 각자 학생들 간의 유용한 정보도 교환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프로사진협회도 하나의 학교라 할 수 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협회 정회원 개개인이 기득권을 버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우리 협회에 들어와 같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나서 설득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또한 전국에 수많은 비회원을 포용하여 한식구가 되어야만 우리 사진계와 우리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전국에 각 지부장은 비회원 업소를 방문하여 그들이 우리와 한식구가 되도록 방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부장과 지회 협회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정회원이 충분한 지식과 정보, 기술, 연수 등을 통하여 정보들을 공유하고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가 모두 뭉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진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진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정보와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한다면 그 분량과 지식은 방대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사진계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한 사진계의 발전은 우리 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개개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 사진가들은 한국프로사진협회를 중심으로 사진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회원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며 우리 모두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국의 사진가는 한국프로사진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新年辭



국회의원 최 승 재

존경하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사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매일매일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비대면사회가 도래하며, 하얀 마스크가 우리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하게 웃고, 함께 울며, 손을 맞잡은 순간 모두 사진 덕분에 기억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사회 곳곳을 누비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임을 떠올리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을 것입니다. 매서운 북극의 한파도 개나리와 진달래의 꽃망을 앞에서 힘을 잃고, 눈꽃은 녹아 실개천을 흐를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도 회원 여러분의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의 회원님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서고, 카메라의 플래시가 대한민국을 비추며, 사진에 담긴 추억이 우리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을 웃게 만드는 날을 위해 저 최승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사)한국프로사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한국프로사진협회 신년인사



국회의원 이상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헌입니다.

어느새 2022년 임인년이 지나가고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를 오랜기간 괴롭히던 감염병의 종결과 완전한 일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순간을 한 장에 담아내는 사진은 그 자체로 그 시대를 기록하는 역사적 시선이자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을 괴롭혔던 지난 3년간의 일상도 시대적 상황을 마스크 속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기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을 넘어 사진은 한 장르의 예술로서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은 어느 예술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진에서부터 예술의 경지에 이른 현대의 사진까지 사진은 기술의 발전을 거듭해 콘텐츠 산업의 근원이 되는 창조의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근간이 되는 사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프로사진협회에서도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창작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진의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감염병의 휴유증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과 사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프로사진협회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이상헌



Take a photograph of dream by KPPA



- 제 목 : 가족사진
- 촬영정보 : Canon EOS 5DS, EF35.00mm, 1/160초, f/8.0, ISO 200
- 작가소개 : 박금서
 - 노벨스튜디오 대표
 - 현 노벨스튜디오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품심사위원



- **제 목** : 일곱난쟁이
- **촬영정보** : SONY ILCE-7RM3, Sony FE 24-70mm F2.8 GM (SEL2470GM) F7.1 1/125 ISO 200
- **작가노트** : 올망졸망 귀여운 친구들의 생애 첫 우정사진. 귀여운 우정 오래도록 이쁘게 이어가세요. 위 작품은 미국프로사진협회 PPA의 2022국제사진공모전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에 출품하여 General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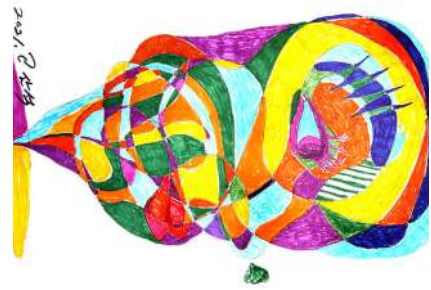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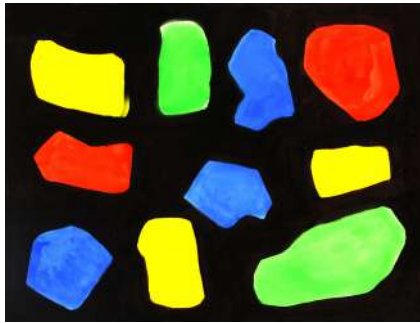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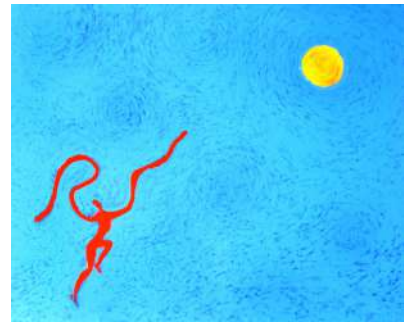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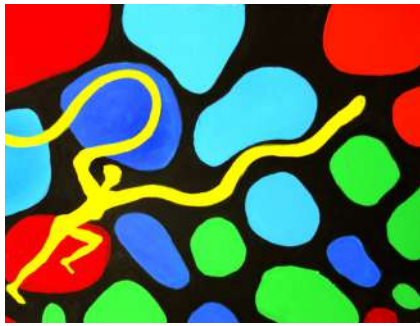
▪ **작가소개** : 천우철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지부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2017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Award
- 2018~2019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Bronze Award
- 2021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Award
- 2021년 PPA MasterDegree(사진명장) 수여
- 2022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Bronze Award





- **제 목** : The spirit of Sword man
- **작가노트** : 04년 미국 PPA 출품 수상작으로, 사진 현상소 전주 거래처 직원이었던 PPA출품 목적으로 검도인을 설득하여 심혈을 기울인 작품.
- **작가소개** : 홍기채
 - 순천 스튜디오한보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미국PPA Certified & Master사진가



■ 작가소개 : 고삼석

- 모네스튜디오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원로자문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사진복원 스토리



복원 사진



김홍식 대표
사진병원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토끼의 해에 가정과 사업에 평안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연과 저마다의 인생 향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고 중도에 나눠진 가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큰맘 먹고 어렵게 촬영된 가족사진을 버리자니 아깝고, 걸어두고 보자니 난감하여 다시 재편집을 부탁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입니다. 편집된 사진은 회원업소의 의뢰를 받아 몇 차례 의견 조율하여 진행된 작업입니다.

자료요청에 협조해주신 대표님 전국에 도움 주신 회원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신랑과 신부 의상은 교체하여 뒤쪽에 배치하고, 신부 측 공간에 균형 있게 인물을 이동 재배치하였습니다.



복원전 사진

추가 인물은 얼굴에 맞는 의상을 입히고 전체적으로 인물색상과 의상 색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가족 편집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 코로나 여파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서로 응원하며 힘을 모아 잘 극복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병원 제공〉

치유를 위한 뇌 과학

밤낮이 바뀔 때 우리 뇌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피로감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불면증은 밤과 낮의 패턴이 생리적으로 바뀌면서 오는 증상인데 우리가 밤낮이 바뀌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램 수면이 지속될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캐디언 리듬" 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새겨진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시



정지윤

두뇌학자 / 교육학 박사

계에 따라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활동을 하게 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잠이 들게 됩니다. 생체 시계에 깊이 관여 하는 게 햇볕인데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어두울 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올빼미처럼 밤낮이 바뀐 생활을 계속 하면 호르몬 분비에 리듬이 깨져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되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다운됩니다. 낮 시간에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내지만 밤에 깊은 수면에 들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서캐디언 리듬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 적응을 위한 몸의 생체리듬을 가정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무조건 눈을 감고 있는 훈련을 2주 동안 지속하면 점차 몸의 시차가 적응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기에 어떤 환경이든 약 2주 정도 노력한다면 가능해집니다. 불면증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오랜 시간 잠을 안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4년 미국의 한 고등학생인 17세의 랜디 가드너는 잠을 안 자는 "수면 중단" 세계 기록에 도전 했습니다. 수면 중단 세계 기록 260시간을 깨

기 위해 12월 28일 아침부터 1월 8일 아침까지, 약 이나 커피를 먹지 않고 정신력만으로 버티어 264 시간이라는 세계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면 중단 도전을 할 때 수면 학의 저명한 과학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디멘트 박사가 입회했는데, 랜디 가드너의 11일 동안의 수면 중단 기간 중 몸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규칙하고 다양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너무 피곤하고 눈의 초점이 일정하지 않았고 4일째부터는 걸핏 하면 화를 내는 감정 기복이 생기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도로 표지가 사람으로 보이는 환각과 백일몽(낮에 눈을 뜬 상태에서 짧게 꿈을 꾸는 현상)증상도 보였습니다. 6일째는 근육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11일째는 말을 제대로 못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 할 정도로 문장을 구사하는 언어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수면 중단 실험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뇌에 장애가 일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몸에서는 뇌세포 재생과 면역력을 증가 시켜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수면은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인내하는 수밖에

시중 사진요금 폭리 기사에 반박한다

(사단지1980년 8월 게재)



白石 임만준 서울지회 자문

지난 7월 14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막 출근해서 사진 스포팅(수정작업) 을 하는데 느닷없이 '사진관 폭리'라는 말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귀가 번쩍 띄어서 귀담아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얘기 내용은 이러했다.

시중 사진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며 또 재료비는 겨우 10%도 안 되는데 4년 전에 150원 하던 것이 무려 2천원이나 되어 그 상승률은 1300% 이상이 되었다 느니, 올려도 너무 올려 받는 것 같다니 하는 내용이였다. 순간, 둔기로 몇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허덕이며 '오늘은 좀 어떨까?' '내일은 좀 낫겠지.'하며 마냥 인내로만 버티어가는 우리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만 것이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장 그날부터 고객에게 곤욕을 당할 판이니 그 파급이 우리 업계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올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나는 그날로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방송망을 타게 되었는지를 수소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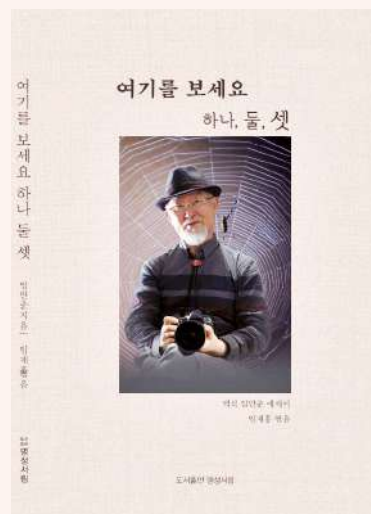
방송 외에 몇 개의 일간지에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기사의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한 소리뿐이었다. 1976년에 150원 하던 것이 4년에 걸쳐서 1300% 이상이 상승하였다니 이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허위주장이며 기사다.

현재 시내 사진업소에서 증명사진을 2천원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해방을 전후해서 사진 한 판을 찍는데 비용이 쌀 한 가마니 값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으로나 희귀한 상품으로서의 가치성이 충분히 그 값어치를 좌우했으리라 짐작된다.

책 소개

- △ 작 가 : 임만준
- △ 제 목 :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 △ 출판사 : 도서출판 명성서림
- △ 가 격: 18,000원



오늘날 과학의 첨단을 이룩한 우주과학과 함께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진학 내지는 사진기술이야말로 곧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하게 애용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진을 찍으러 손님이 오시면, 먼저 그 손님의 용모 또는 성격을 잘 감지하고 파악하는 데서 촬영은 시작된다.

그리고 올바른 채광법으로 높은 질의 광색으로 선명도가 좋은 렌즈를 통하여 정확한 적정 노출로써 품질 좋은 필름을 사용한다. 손님의 표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시키면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직업사진인들의 예술가적인 가치를 적용한다면 가격을 두서너 배는 더 올려야 타당 할 것이다.

밀폐된 한 평 안팎의 암실에서 정확한 온도와 약액의 농도를 면밀히 계산하여 얻어지는 현상에다 1/10초에 좌우되는 노광으로 사진의 검고 흰 차이라든가 정지역에 처리되어 신선도 좋은 정착액에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교반을 하게 된다.

이것을 흐르는 물로 1시간 이상 수세를 한 후 건조하여 $\pm 0.5\text{mm}$ 의 오차로 절단해 놓는 전 과정을 보고 체험을 한다면, 오히려 “2천원이면 너무 싸다”고 팁이라도 찢려주어야 할 세밀한 공정이고 작업인 것이다.

증명사진 한판을 찍어서 완성되기까지 정상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은 2시간이 걸린다. 미장원에서 약간 고급스러운 화장을 하려고 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2시간의 화장 비용이 적게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도 든다는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비용에서 서비스를 보태고 봉사정신을 담아 고객을 섬기는 것이

다.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한 기자가 편협하게 쓴 기사로 인해 우리 직업 사진 인들은 보기 좋게 얻어맞았고, 큰 한숨만 내 쉬어야 하다니!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인내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의 진심이 인정받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증명사진 2천 원을 받고 5천 원의 값어치 이상으로 작품화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가치와 보람의 열매를 맺을 그 날을 묵묵히 기다리면서요.”

1980.07

* 편집자

임만준 씨가 투고한 내용의 위 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을 전후해서 신아일보(12일,7면)경남매일(12일,2면)매일경제일보(14일,8면)일간스포츠 기독교방송(12일,뉴스) 동양방송(14일,가로수를 누비며)에 보도된 내용으로 본 협회 사무국에서 진상을 조사해 본결과 이들은 모두 합동통신사 경제부에서 제공받은 기사였다.

본 협회 사무국에서는 협회에서 그동안 발행했던 사진 요금표를 합동통신사 측에 제시하고 해명 기사를 내줄 것을 요구, 이 사실을 인정한 합동통신사와 매일경제일보, 신아일보에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각기 해명 기사를 지상에 발표했다.

포기하려 할 때 일으켜준 분들

사람의 인연이 한 사람의 일도, 운명도 바꿔놓았다. 아마도 가장 아끼는 사진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 장의 사진을 꼽을 수 있다.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그냥 셔터를 누른 것이 있다. 왜 찍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사진으로 남았다.



김도형 기획위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평소 너무 잘 알고 지내던 음악가가 있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어 김도형을 표현하는 문장 한 줄을 부탁드렸을 때 '작가 김도형 씨는 연주자의 멋진 모습과 춤나를 기억하기 위해 수백 수천 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고 써주신 게 잊그제 같다. 사진작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기도 하다. "처음 무대 사진에 저를 이끌게 한 분이 선생님입니다. 이젠 제가 이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기만 했다. 나와 내 사진을 좋아해 주시는 선생님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 분은 너무 정감 어린 특유의 말투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였다. 한참 침묵하던 선생님이 입을 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다.

"도형 씨~, 그만 안 두시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데 제가 왜 더해야죠?"

"우린 당신과 당신의 사진이 필요하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선생님"

이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거처를 나왔다. 그 후 다시 십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무대 사진을 찍고 있다. 30여 년을 사

진과 함께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사진사라면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공연 사진이건만 왜 이토록 고집하면서 걸어왔을까? 그러면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며 무대 사진을 어렵게 끌고 왔다. 돌이켜보면 힘든 여정이었다.

그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증명사진도 곧 공연 사진이 되며, 프로필사진이자 가족사진이며 인물사진이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사진을 찍다 보니 모든 사진에는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었다. 나를 깨달았다는 생각에 사진이 소명 의식으로 다가왔고, 내 사진 촬영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한 가지 일을 무조건 오래 했다고 그 일의 전문가라는 말은 허튼소리다.

오래 하다 보니 반복되는 과정에서 익숙해진 것을 상품으로 내놓는 곳도 있다. 상품이라고 한다면 뭐라 이견은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라면 자신의 결과물에 상품 딱지가 붙은 것이 싫을 것이다. 적어도 난 싫다.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의 인조조명 아래서 공연 사진 찍듯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싫다. 그래서 고객이 이런 요구를 하며 촬영요청이 들어오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거절하는 편이다. 무대는 무대 느낌으로 해야 진짜다. 무대언어가 따로 있고, 무대촬영매너가 따로 있는 법이다. 모든 일에는 그 일만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만든 규율과는 다르고, 애정을 가지

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는다.

무대 촬영은 포토샵처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내 원칙이다. 좋은 사진을 만들겠다고 무대 촬영에서 후레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발상이다. 오랜 시간 연주무대를 지켜보면서 진짜 느낌을 찾았고, 이것은 지켜야 하는 법칙이자 나만의 고집이다.

연주 무대 촬영은 방음벽 없이 찍는 상황에서도 셔터소리가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아야 한다. 무대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카메라 셔터 소리는 연주자와 청중을 배려하지 않는 가장 무식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져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절로 배려가 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세상이 되었지만, 아날로그에서 가지는 특유한 인간의 감성과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 철학이다.

“원샷! 원킬!” 이십 년 전 내가 진짜 무명이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젊은 시절이었다. 촬영하러 갔다가 나에게 경우 없이 말하는 사람을 만났고 촬영 내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찍은 그 분의 프로필 사진 한 장을 한 컷으로 잡아내서 살짝 화제가 되었다. 그 한 컷을 찍기 위해 내 속을 긁어대는 태도와 말투를 참아내며 이야기하고, 관찰해가며 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순간의 한 컷 촬영!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바닥에 소문을 내시거나 저를 원망하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좋았던 모양이었다. 이년 뒤 그분이 나에게 다시 촬영 의뢰를 해왔고, 그때는 두 컷을 촬영하며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었던 자격지심이 아니었

나 싶기도 하다.

내게는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기에 비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가진 것 없는 젊은 사진사의 혈기였을 수 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청년의 객기일 수도 있겠다. 그 일을 계기로 다행히 나의 자존감은 더욱 깊고 강해졌다.

전문가의 길을 걷기란 외롭고 힘들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때마다 고마운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시 일어나고, 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그분들께 받은 고마움을, 내 젊은 시절처럼 힘들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베풀며 힘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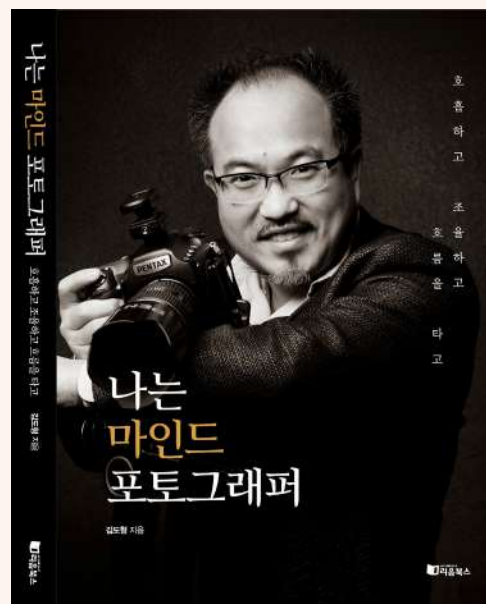
책 소개

△ 작 가 : 김도형

△ 제 목 : 나는 마인드 포토그래퍼

△ 출판사 : 리움박스

△ 가 격 : 18,000원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의 탄생



신현국 작가

서구 근대미술 특히 유럽의 미술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 미술의 범위를 넘어 야수주의로부터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면서 미술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미국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전통적 사실주의적 기법이 지배적이었다. 미국미술의 변화는 2차 세계대전으로 도미한 유럽의 전위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비로소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일찍이 미국미술에 자극을 주었던 뒤상과 모홀리 나기 그리고 추상화가 몬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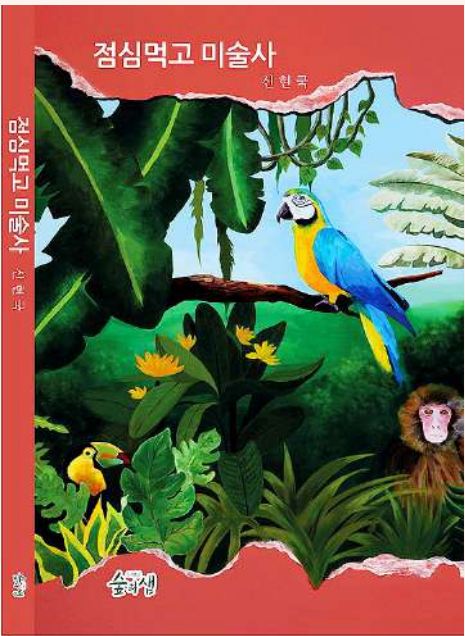
안과 사갈, 초현실주의 예술가 달리 등 다양한 분야의화가들이 도미하면서 미국은 유럽미술의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 하게 된다. 특히 컬렉터인 페기 구겐하임은 '금세기 미술관(Art of This Century)' 화랑을 열어 유럽 전위예술을 미국에 널리 알린다. 이 시기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미국의 전위예술이 추상표현주의다. 추상표현주의란 미국의 비평가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칸딘스키의 초기작품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추상적이거나 내용적으로 표현적이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나 1940년대 '뉴욕커'의 기자가 폴락과 드쿠닝의 작품

에 사용함으로써 일반화 되었다. 한편 비평가 로젠버그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추상표현주의'가 회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잭슨 폴락, 로스코, 드쿠닝 등이 있다.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은 구겐하임의 후원아래 '금세기 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면서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폴락의 미술 경향은 그가 용의 심리분석과 관련된 알콜 중독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추상성을 발견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폴락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리고, 튀기고, 흘리고 부으면서 온 몸의 액션을 이용해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의 그림 '넘버 17A'는 2016년 5억 달러(6천 165억원)에 팔려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로는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인에 의한 미국 최초의 전위예술인 추상표현주의는 폴락 등 주요작가들이 작고하면서 1960년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편 애매하고 환영적인 추상표현주의가 쇠퇴할 무렵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미술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잭슨 폴락 등 추상표현주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진발명 이전의 미술이 사실적인 형태와 색상의 틀 안에서 재현되었다면 사진발명 이후, 모더니즘의 추상적 미술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극도로 반영된 난해한 예술로 변화하였다. 195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네오다다를 이끈 로버트 라우센버그, 자스퍼 존스 등의 작가들은 예술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난해하고 애매한 추상표현주의 때문이라 단정하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 등을 이용한 대중미술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네오다다는 부정과 파괴를 가치로 하는 반 미학적 경향의 다다이

책 소개

- △ 작 가 : 신현국
- △ 제 목 : **점심먹고미술사**
- △ 출판사 : 숲과샘
- △ 가 격 : 20,000원



즘과 구분되는 창조적 전위예술로 팝아트를 이끌었다.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는 콜라병, 타이어, 종이, 나무, 금속 등의 물체를 표면에 덧붙이는 회화 스타일로 평면에 3차원의(42) 미술품 판매 시 일반적인 공개매찰 방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다른 사람의 구매가와 경쟁 관계 없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짐. 입체감을 선보였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스타일을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컴바인의 혁신성은 대중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팝아트의 아방가르드 운동에 계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난해한 추상표현주의 예술에 반기를 들고 태어난 팝아트도 형식적으로 추상표현주의 적절한 계승을 통해 대중예술이라는 새로운 미술형식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리히텐슈타인은 1965년 액션 페인팅의 붓놀림을 연상케 하는 '붓놀림'이라는 연작을 통해 잭슨 폴락을 환기시켰다. 리히텐 슈타인(Roy Lichtenstein)은 그의 창작 활동에 인쇄 중 나타나는 망점을 활용하였다. 대중문화 중 하나인 만화를 소재로 인쇄 식 망점을 확대 재구성하여 유희적 예술로 해석한 것이다. 그의 작품중 '행복한 눈물'은 대기업 비자금 관련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미국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앤디 워홀은 1964년 뉴욕 맨해튼에 자신의 작업공간인 '팩토리'를 열었다. 그는 케네디, 마를린 먼로, 엘비스프레슬리 등의 인물과 교통사고 기사 등 죽음과 관련된 '죽음과 재탄' 연작을 실크스크린으로 재생하면서 원본의 이미지를 새롭게 환기시켰다. 그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대량생산의 기능을 예술에 적용함으로써 미술도 산업화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의 작업실을 '팩토리'라 불렀다. 미국의 팝아트는 클래스 올덴버그, 로버트 인디애나, 키스해링 등이 계보를 이으면서 현대미술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클래스올덴버그는 2006년 다슬기 모양을 형상화하여 서울 청계천의 샘솟는 힘을 상징하는 '스프링'이란 거대 조형물을 작업했다. 그의 작품은 청계천 광장 입구에 설치되어있다. 팝아트의 기원은 1950년대 영국의 리처드 해밀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해밀턴은 당시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매스 미디어에 주목하고 사진, 잡지 등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사회비판적 의미를 내포한 작품



▲ '스프링', 클래스 올덴버그 부부, 청계천 광장

재해석 했다. 촬영한 사진을 타일과 같은 형태로 배치하면서 원근법은 파괴되고 벽화와 같은 평면적 형태로 재현되었다. 그는 영국 팝아트의 중심인물이면서 메이크 포토(Make Photo)의 선두주자로서 1980년대 뉴웨이브에 영향을 주었다.

43)을 만들었다. 즉팝아트는 사회비판적 성격을 띠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은 영화나 TV 등 매스 미디어의 이미지 외에도 코카콜라, 캠벨 수프 통 등 일상의 소재를 적극 수용하고 미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 비판적 이기 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Art of Popular'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리처드 해밀턴 이후 영국의 팝아트를 이끈 예술가로는 화가이며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가 대표적이다. 동성애자였던 호크니는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활동하였으며 성 정체성을 작품에 과감하게 드러낸다. 그의 작품 중 '수영장 시리즈'는 그가 살던 할리우드 힐스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일반적인 수영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정적이고 건조하게 묘사되어있다.

하지만 호크니는 물결 등 어느 한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한때 콜라주 형식의 사진작업인 '포토콜라주' 사진작업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가 피카소를 존경했음을 짐작케 하는 포토콜라주 작업은 같은 장면을 다시점으로 촬영하여 재배치하였다. 포토콜라주는 1920년대 유행했던 작업이지만 호크니는 다시점 촬영과 독특한 배열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43) 리처드 해밀턴의 대표적인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가'는 1965년 만들어진 콜라주 작품이다.

마음이 열리는 문화탐방

부천 고강지역 선사문화 이야기1코스



최정선
가천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2. 수주(樹州) 문학관

별관: 2층 3층 구성

2 층: 수주(樹州) 문학관

시인이자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한 수주 변영로 선생에 대한 전시 관람이다. 전시 코너 수주문학관은 고강 선사유적공원 내 문학관동 2층에 297㎡ 규모로 지어졌으며 수주도서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고강시민학습원을 함께 특성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전시장 4개 주제 구성, 4개 주제로 나눠 스토리가 있는 전시 운영한다.

부천이 낳은 세 명의 천재인 변영만 · 변영태 · 변영로 형제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은 법률과 외교, 문학에서 한국근대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1존 '천재의 고향, 펜을 들다'.

제1기(1898~1924년), 시작(詩作)태도

1898 수주 변영로 탄생

1918 영시 Cosmos를 지면에 처음 발표

1919 독립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

1924 시집 조선의 마음을 평문관에서 발행

시는 짓는 것이 아니고 발(發)하는 것이어야 함에 눈물 같아야하고 한숨 같아야 하며

때로는 애소(哀訴)로 때로는 노호(怒號)이어야 한다.

2존 '민족의 울분, 기록하다'

제2기(1925~1945년), 일제에 변절하지 않았던 지식인

1932 미국 유학 귀국길에 일본 코오베 경찰서 구금
1936 '조선의 건각 사건'으로 동아일보사에 그만두다
1937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107일간 구속
1943 '사벽송(四壁頌)' 발표
가혹한 일제의 폭력 앞에 저항했던 수주선생의 고난
한 삶을 기록.

3존 '지조의 문인, 마을을 울리다'

제3기(1945~1953), 끝없는 기다림

주아적(主我的) 생활(生活)
1946 해방의 기운과 함께 문필활동 재개
1953 6.25 전쟁을 겪으며 '명정40년' 출판.
수주문학관의 꽃이라 할 만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수
주 선생이 남긴 가장 중요한 문학적 성과인 '조선의
마음'과 가장 중요한 시편들로 채워졌다.

4존 '수주의 흔적, 정신을 이어받다'

제4기(1953~1961) 나의 음주변(飲酒辯)

1954 산문을 정리하여 '수주 수상록' 출간
1955 '선성모욕(先聖侮辱)사건' 으로 성균관대학교 교
수자리에서 물러나다.
1961 수주 변영로 고향 부천에서 잠들다.
애주가였던 선생의 모습을 통해 '인간 변영로'의 새로
운 면모를 만나볼 수 있다. 수주 선생의 단골 가게였
던 은성주점 재현과 50여 점의 유품을 통해 수주 선
생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졌다.

수주이야기 제1, 제2, 제3, 제4로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다.

3. 고강 선사문화 유적 체험관

별관 3층: 고강 선사문화 유적 체험관

1존 - 고리울 선사유적 탐사대

2존 - 고리울 유적의 흔적을 찾아라

3존 - 옛 고리울 마을로 떠나자 등 3개 코너로 설계
되었다.



선사유적과 관련된 전시를 연중 운영해 문화체험 기
회를 제공한다.

반달돌칼의 비밀: 청동기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농사
로 주요 곡물은 조, 보리, 콩이며 농기구는 나무와 돌
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농기구가 반달돌칼이다.

다양한 청동기시대 모양의 토기도 설명한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설명하는 그림
과 포스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선사시대의 도구, 의, 식, 주,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설명들도 있다.



제63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임병학

심사위원 : 김동민, 서현호, 심준섭, 이성환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사진나라	김정현	뜨거운 질주
은상	윤슬사진관	김영훈	질주1
	샘영상스튜디오	문정수	연인
동상	그린미디어	김기엽	미소
	선경스튜디오	김종육	낭만의 질주
	이안스튜디오	장의정	교감
가작	송란스튜디오	김경진	햇살 닮은 미소
	메모리스스튜디오	김태만	말 달리자
	고운사랑스튜디오	노봉률	질주-1
	163스튜디오	이성열	말 달리자
	알라딘스튜디오	이흥식	태극기 휘날리며

입선	뉴포토 스튜디오	강호
	형곡스튜디오	김경수
	서재사진관	김경환
	김만진사진연구소	김만진
	예원스튜디오	김서연
	타이밍	김영주
	연제디지털포토	김철호
	스포츠라이트	김하영
	무거동사진관	김희덕
	민영디지털	남영우
	포토아일랜드	문달순
	사진찍는날	박용주
	제일칼라	박우철
	이브앤피스스튜디오	박중숙
	바오밥스튜디오	박진우
	화이트스튜디오	박홍순

입선	페도라스튜디오	설정욱
	허바허바사진관	송연석
	빛가람스튜디오	양유승
	예쁜나의사진실	이광호
	삼육스튜디오	이덕경
	예원스튜디오	이동기
	베이비스타	이만식
	문스튜디오	이문삼
	대일사진관	이병기
	짱스튜디오	장희수
	유화사진실	전동진
	희망스튜디오	전병재
	만들레사진관	전희정
	네오스튜디오	조재용
	한포토	한권일
	꿈사랑 스튜디오	한명룡

입선	디지털포토피아	현병섭
	스튜디오 흥	홍상표
	홍스튜디오	홍석례
	림포토	강행림
	영광스튜디오	노광이
	진포토	염동진
	LEE PHOTO	이광영
	포즈스튜디오	이해승
	뉴스타포토	전용철
	선사진실	정세화
	아이존스튜디오	최문성
	운누리스튜디오	최용수
	윤슬사진관	한승호



김정현

금상_뜨거운 질주



은상_ 질주



김영훈



문정수



은상_ 연인



동상_ 미소



김기엽



김종욱



동상_ 낭만의 질주



동상_교감



장익정



김경진



가작_ 햇살따은 미소



가작_질주-1



김태만



노봉률



가작_말달리자



이성열

가작_ 말 달리자



이흥식



가작_ 태극기휘날리며

제28회 추천작가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김선식
 심사위원 : 강호, 권혁만, 김영주, 김희덕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동네사진관	장종일	포즈
은상	삼육스튜디오	이덕경	양면
	사랑이야기	정태영	플댄스
동상	아이야스튜디오	김중현	봉댄스작품-4
	오란포토	윤동렬	여인의 선
	LEE PHOTO	이광영	플댄서2
가작	그린스튜디오	김기엽	곡선
	(주)이디지털큐브	김진권	그녀의 백아치
	고운사랑스튜디오	노봉률	빛의 선
	아이쁘또스튜디오	이용일	모델1
	홍스튜디오	홍석례	기다림
입선	예원스튜디오	김서연	플댄스2
	성안필사진관	김원수	포즈
	아이야스튜디오	김중현	봉댄스작품1
	고운사랑스튜디오	노봉률	조화2
	포즈앙팡	박종숙	무제2
	임광스튜디오	박준규	달콤한 휴식
	제일사진관	성동권	무제3
	여수허버허바사진관	송연석	포즈3
	LEE PHOTO	이광영	플댄서2
	파스텔스튜디오	이병덕	플댄스
	아이쁘또	이용일	누드3
	동네사진관	장종일	플아트
	사랑이야기	정태영	환상의 퍼포먼스



금상_ 포즈



장종일



은상_ 양면



이덕경



정태영



은상_ 폴댄스



김중현

가작_ 봉댄스작품4



윤동렬



가작_ 여인의 선



가작_ 폴댄서2



이광영



김기엽



가작_ 곡선



가작_ 그녀의 백아치



김진권



노봉률



가작_ 빛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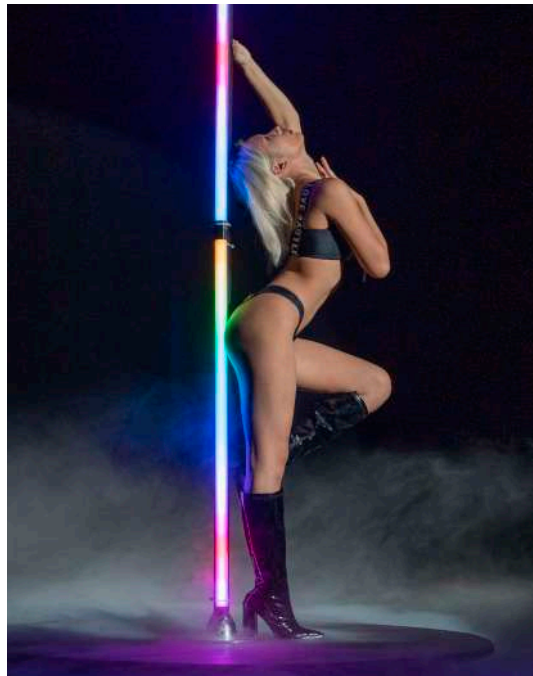
가작_ 모델1



이용일



홍석례



가작_ 기다림



2022 울산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김동민

심사위원 : 이경우, 이성환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경우사진관	김교식	휴식
은상	무거동사진관	김희덕	나비처럼
	알라딘스튜디오	이흥식	포즈
동상	모델사진관	권혁만	바닷가의 추억
	김사진관	김병구	바다가 부른다
	정디지털포토	정주학	모델과 작가
가작	태화사진관	김석웅	바다소리
	세븐스튜디오	박선길	인어공주1
	한국사진관	오세은	포즈
	옥동사진관	최석현	포즈
입선	화봉사진관	강병훈	고동과 여인
	현대디지털포토	권광천	고동을 잡는 여인
	아이스튜디오	김선일	바다와 여인
	성안필사진관	김원수	반영
	진미사진관	문흥수	응시
	드림스튜디오	박남규	해변의 여인
	구암사진관	박복필	머슬 김혜경
	동영상사	박우재	해변의 여인
	사진예감	안성현	포즈
	포토21	안인환	포항머슬 김혜경
	평화사진관	이이균	해변의 여인
	이진규포토	이진규	여인의 향기2
	루가사진관	이학순	요트탈래



금상_ 휴식



김교식



은상_ 나비처럼



김희덕



이흥식



은상_ 포즈



권혁만

동상_ 바닷가의 추억



김병구



동상_ 바다가 부른다



정주학

동상_ 모델과 작가



김석웅



가작_ 바다소리



가작_ 인어공주1



박선길



오세은



가작_ 포즈



가작_ 포즈



최석현



2022 강원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김영주

심사위원 : 서현호, 심준섭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파스텔아이 원주점	김윤현	김삿갓
은상	포토타운	이흥재	길
동상	르씨엘	김경식	삿갓2
	신용스튜디오	방용현	해탈
입선	르씨엘	김경식	삿갓1
	하늘빛스튜디오	김승배	무제
	고향사진관	박종두	무제
	신용스튜디오	방용현	자연인



금상_ 김삿갓



김윤현



이흥재



은상_길



김경식

동상_삿갓



방용현



동상_해탈



2022 호남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이동기

심사위원 : 이한우, 이희춘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민영디지털	남영우	노동요1
은상	153스튜디오	이성열	아, 해봐!
	아침햇살스튜디오	정수년	해녀와 바다
동상	영광사진관	노광이	해녀들의 노래
	포토아일랜드스튜디오	문달순	힘든 일은 잠시 잊고
가작	정음 준스튜디오	박호준	노래하는 여인들
	앨범토피아	윤병선	해녀질
입선	민영디지털	남영우	노동요2
	샘영상스튜디오	문정수	집으로2
	샘영상스튜디오	문정수	휴식3
	포토미엘	박해승	바다의 여신



금상_노동요



남영우



은상_ 아! 해봐



이성열



정수년



은상_ 해녀와 바다



동상_ 해녀들의 노래



노광이



문달순



동상_ 힘든 일은 잠시 잊고



박호준

가작_ 노래하는 여인들



윤병선



가작_ 해녀질

2022 경북지회 지상공모전

심사위원장 : 권혁만

심사위원 : 강호, 한철진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사진회관



입상(선)명	상호	성명	제목
금상	스튜디오 노크	윤영신	소중함
은상	송란스튜디오	김경진	여고 동창생
	화이트베베	안재철	느낌
동상	보림사진관	권순금	자신감
	화이트베베	안재철	나 이빠!
가작	화이트베베	안재철	소망
	스튜디오 노크	윤영신	멋쟁이
	사진나라스튜디오	홍재목	미소
입선	형곡사진관	김경수	나 이런사람이야!
	행복스튜디오	김해용	무제1
	사진촌사진관	손영복	무제1
	경주사진관	장광기	무제3
	동네사진관	최일하	모델2



윤영신

금상_ 소중함



김경진

은상_ 여고 동창생



안재철



은상_ 느낌



동상_ 자신감



권순금



안재철



동상_ 나 이빠



가작_ 소망



안재철



윤영신



가작_ 멋쟁이



가작_ 미소



홍재목

나의 목표 카메라 박물관

대전, 세종, 충청 총판 캐논스토어 이승호 대표

Q. 카메라가 정말 많은데요 카메라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카메라가 약 1,000대 정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수리를 배우러 일본을 왕래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 때 유명한 카메라 전문가분을 만나서 집에 초대받았는데 50대 이상의 카메라가 수집된 것을 보고 아, 이거다 싶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를 나도 이렇게 수집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의 값어치가 점점 오를 거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들도 제가 수집했을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전 캐논 스토어 3층 이승호 대표의 개인 소장 카메라 1,000여 대〉

Q. 카메라 수집 중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하나 꼽자면 예전에 한 100년 정도 된 카메라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진열장에 넣기 전에 청소를 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 보니 촬영된 필름이 감겨 있더라고요. 그 필름을 정말 어렵게 현상했더니 1930년대 초로 추정되는 어느 한 미국인의 가정과 그 사람의 자동차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90년이 지난 이후에도 현상이 된다는 놀라움에 다시 한번 놀랐고 아직도 현상이 되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1933년 전후 어느 귀족의 취미생활이 찍힌 사진〉

Q. 독자분들께 소개하면 좋을 카메라 3가지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① 니코노스 수중 필름 카메라 (Nikonos)

제가 20대 때부터 사용해 왔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로 접사, 표준화각, 초광각까지 다양한 수중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니코노스 수중 카메라〉



〈이승호 대표가 촬영한 수중촬영 사진〉

② 롤라이플렉스 2.8GX(Rolleiflex 2.8 GX)

렌즈 교환이 안되는 단일렌즈 카메라인데 해상도가 중형카메라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렌즈를 갖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깨끗한 촬영이 가능하며 색감이 아름답습니다.



〈롤라이 플렉스 2.8 GX〉

③ 호스만 612(Horseman 612)

대형 파노라마식 카메라로 간편하고 렌즈가 다양해서 촬영에 용이합니다. 65mm 슈퍼 앵글론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호스만 612〉

Q. 대표님의 컬렉션으로만 남기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저만의 컬렉션으로 남겨 두진 않

을 겁니다. 카메라 박물관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다양한 사진과 카메라의 역사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컬렉션 제품들을 수리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앞으로 작가로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진작가로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해외 촬영들이 취소됐었습니다. 저도 촬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그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수중촬영과 해외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활동뿐 아니라 제가 알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특히 요새 MZ세대들은 사진에 관한 관심은 많지만, 정보가 적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Q. 3부작 인터뷰를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수의 분들이 제가 카메라를 수리하고 판매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3부작 기획물을 계기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앞으로의 꿈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신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의 기술은 매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함께 좋은 사진 찍으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승호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취재:한장훈 기획위원장〉



서울지회



- **제 목** : 소나무
- **촬영정보** : FUJIFILM FinePixS2Pro 28mm f/16 1/15초 ISO100

- **작가소개** : 김병로 작가
 - 엘 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운영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상공모전 입상. 입선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단체 회원전 다수



- **제 목** : 백두산 천지
- **촬영정보** : Canon EOS-1Ds Mark II . 1/400 . f/9. 15mm. ISO 100.
- **작가소개** : 이경우
 - 삼육 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위원(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감사(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심사위원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상공모전 심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작품심사 심사위원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2008~2020년 매년 광진지부 단체전시회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전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 촬영대회 심사위원
 - 서울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사진홍보대사
 - 크리스마스 마켓 사진대회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
 - 김천교도소내 작품전시





부산지회



- **제 목** : 부산항대교
- **촬영정보** : Nikon D750 & 50mm f1.8 1/250, f16 , ISO 80 A mode
- **작가노트** : 저녁 8시 정각이 되면 다리에 이쁜 불빛이 점등됩니다.

- **작가소개** : 박종국
 - 허리웃포토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 사무국장



- 제 목 : 조선소
- 촬영정보 : Nikon D750 & 24-120 F3.5-5.6 at 34mm 1/10, f11, ISO 100 A mode
- 작가노트 : 야간 수리 중인 조선소의 풍경



경기지회



▪ 제 목 : 新婦와 拳銃

▪ 작가노트 : 영화속의 영화 킬빌의 우마서먼(Uma Thurman)처럼 신부의 내유외강(內柔外剛)을 표현.

▪ 작가소개 : 김영훈

- 윤슬사진촬영연구소 원장
- 2022 제14회 남북통일예술협회 “국회의장상” 수상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구리, 남양주지부장
- 가평예술대학 사진과 교수
- 대한민국남북통일예술협회 [사진명인선정 (명인 2016-2호)]
- 한얼문예박물관 [사진명장선정 (명장 (한얼 제2020-명장10호)]
- 제6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해양수산부 장관상
- 제10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예술대전 대상(경기도지사장상)
- KBS춘천방송총국 개인전



▪ 제 목 : 新婦와 rifle



- **제 목** : 해미읍성의 아침
- **촬영정보** : 매빅3 1/2500 F2.8 감도300
- **촬영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2022.10.23. 오전07시)
- **작가노트** :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이다. 해미읍성은 서산의 역사 체험과 관광삼아 다녀가 볼만한 곳이며 새벽녘의 안개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작가소개** : 권혁만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 제10대 지회장
- 2021년 제1회 노란우산 삶의현장 사진공모전 대상수상
- 2021년 울산 한마음 미술대전 사진부문 금상수상
- 2020년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대상



- **제 목** : 가파도 해녀
- **촬영정보** : Canon EOS 5D Mark IV S, 1/800 F, 6.3 ISO, 400
- **촬영장소** : 제주 가파도
- **촬영일자** : 2020. 1. 2
- **작가노트** : 새해를 맞아 떠난 촬영여행지 제주 날씨가 흐려 가파도 청보리밭을 보기위해 방문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고 해녀분들의 부산한 움직임 가운데 느껴지는 여유를 함께 느꼈던 시간이었다.

- **작가소개** : 김동민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
 - 현 코레일 철도사진갤러리 대표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이사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 제 목 : 단정학

▪ 촬영정보 : NIKON D4, 600mm, f/5.6, 1/1250초, ISO200

▪ 촬영장소 : 강원도 철원

▪ 작가노트 : 단정학이 먹이사냥을 마치고 휴식처로 이동하는 아름다운 비행 모습

▪ 작가소개 : 김선식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38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이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기록화 사업팀장
- 사진관운영 민간자격제도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의 아름다운강 사업부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기록화 사업부팀장
- 국토해양부 길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행안부 명품길 공모전 심사위원
- 보건복지부주최 노인의식개선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장
- 직능.소상공인 경진대회 작품 심사위원
- 해양수산부 등대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군용헬기 추락사진 촬영 (올림픽대교 조형물설치중 추락)
-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 한국사진문화상 수상



- **제 목** : 차밭 설경
- **촬영정보** : Canon 5D Mark III ISO-50 F22 1/6
- **촬영장소** : 보성차밭
- **작가노트** : 눈 덮인 차밭에서 봄날을 그려본다. 차가운 겨울 지나면 따뜻한 새봄 오겠지.

- **작가소개** : 김현호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촬영대회/공모전 입상 다수
 - 전남문인협회 이사
 - 보성예총 이사
 - 이달의 디카시 작품상(2021년4월)
 - 보성의 풍광」개인전, 「차밭에 머물다」 개인전
 - 시집 「차꽃 피면 만나리」





▪ 제 목 : 일출

▪ 작가노트 : 검은 머리가 하나씩 흰머리로 보태진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가 점점 멀어진다.

2022라는 숫자가 사라져간다. 저 사라지는 태양 속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태양이 솟아나길 기대해본다.

나이는 숫자다. 손에 가볍게 쥐고 있다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살며시 놓아버리고 내일이란 미래를 맞이하려 한다.

우리 모두 숨 한번 크게 쉬고 기지개 한번 켜고 멋진 삶을 살아보자!

▪ 작가소개 : 이용일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이사, 국제분과위원장, 사진문화원 이사 역임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남지회 지회장 역임
- 1978년 세한칼라 촬영대회 입상 및 수상
- 2018~2019년 순천 사계 CBS 사진공모전 입상 및 수상



- **제 목** : 겨울꽃
- **촬영정보** : 니콘D850,200-400,F8,1/500
- **촬영장소** : BEAI
- **작가노트** : 세찬 눈보라에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던 너, 겨울의 차가움 속 뜨거운 인내를 배운다.

- **작가소개** : 이정휘
 -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 **개인전** : 작은그리움展(2015 수원시립미술관), 기억저편에서면展(2016 영월교육사박물관)
위로展(2017 벽적골갤러리), Flower 展(2018 이디알레 갤러리)
春夢(춘몽) 展(2018 안양소방서 공감 GALLERY)
- **그룹전** : 2015 SOAF전 , 2015 광주비엔날레NICAf전, 2015 상해 국제미술전
2017 서울롯데아트페어 , 2018 Hello Newyork展





▪ **제 목** : 아름다운 서울

▪ **촬영정보** : Canon EOS 5D Mark III, 24mm, f/7.1, ISO320

▪ **촬영장소** : 광진구 아차산 정상

▪ **작가노트** : 일년에 한두번 볼 수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광

▪ **작가소개** : 정세화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총무
- 중앙협회 순수사진 공모전 은상
- 경기도들꽃사진공모전 은상 (경기도지사 상 수상)
- 토종닭 공모전 대상 수상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17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심사위원 2022년 7월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에 아름다운강 공모전 동상
- 니콘촬영대회 작품 심사위원

제63회 국제세미나촬영대회, 제28회 추천작가촬영대회 심사

울산지회, 강원지회, 호남권, 경북지회 심사 사진회관에서 열려

심사 종류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제63회 국제세미나 촬영대회	임병학	김동민, 서현호, 심준섭, 이성환
제28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김선식	강호, 권혁만, 김영주, 김희덕
2022 울산지회 촬영대회	김동민	이경우, 이성환
2022 강원지회 촬영대회	김영주	서현호, 심준섭
2022 호 남 권 촬영대회	이동기	이한우, 이희춘
2022 경북지회 지상공모전	권혁만	강호, 한철진
2022 경북지회 지상공모전	이동기	이한우, 이희춘



단체사진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심사모습

지난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13시 사진회관에서 작품심사가 열렸다.

권혁만 부울경 부지회장, 심준섭 작가제도위원장, 한철진 미래IT위원장, 임병학 4차산업발전추진위원장, 이성환 작가제도이사, 김선식 법제이사, 이동기 4차산업발전이사, 서현호 작가제도 간사, 김동민 작가제도위원, 김영주 작가제도위원, 이희춘 작가제도위원, 이 경우 작가제도위원, 이한우 초대작가가 참여 하여 심사를 진행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13시에 사진회관에 집결 후 권혁만 부회장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심사를 진행하였고, 오후 5시에 모든 심사를 마쳤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이성환** 작가제도이사〉

제4차 이사회의 및 지회장 연석회의

2022년 12월 13일 사진회관에서 열려

이사회에 앞서 12월 8일 오후 7시에 회장단 회의(온라인 ZOOM)가 열렸으며, 4차 이사회 및 지회장 연석회의가 지난 12월 13일 사진회관에서 열렸다. 38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이영익 총무위원장이 의장(정옥기 회장)에게 보고하여 개회선언이 되었다. 국민의례 후 진행된 이사회는 아래의 7가지 의안을 다루었다.

참석자는 정옥기 회장, 손무수 수석부회장, 권혁만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이영익 총무위원장, 한 장훈 기획위원장, 성덕현 재무위원장, 김정대 법제위원장, 정태영 교육자격위원장, 나영균 홍보위원장, 한철진 미래IT위원장, 김우형 정부정책위원장,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 정대홍 복지위원장, 임병학 4차산업발전추진위원장, 채만수 사

진진흥특별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전성한 총무이사, 홍석례 기획이사, 이정주 재무이사, 이영진 교육자격이사, 이성환 작가제도이사, 서호경 작가제도이사, 김만배 홍보이사, 김경환 미래IT이사, 이동기 4차산업발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안규석 대구지회장, 문달순 광주지회장, 김승배 강원지회장, 임흥철 충남지회장, 최완식 경북지회장이 배석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여권사진 시행규칙이 다루어졌으며, 폐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정옥기 회장)께서 오후 3시 폐회를 선언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한 명씩 새해 각오와 신년 덕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식사하였다. 이영익 총무위원장의 헌신으로 진행된 송년 석식의 메뉴는 대방어와 순두부찌개, 갓김치 등을 여수에서 직접 공수하여 참석한 이사와 지회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박남규** 대외협력 위원장〉

〈사진: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 단장〉



정옥기 회장



사회 이영익 총무위원장



국민의례



의안심의



이사회 모습



성덕현 재무위원장 제안설명



손무수 수석부회장



권혁만 부회장



단체사진



김정대 법제위원장



한장훈 기획위원장



정태영 교육자격위원장



나영균 홍보위원장



한철진 미래IT위원장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



정대홍 복지위원장



임병학 4차산업발전
추진위원장



채만수
사진진흥특별위원장



전성환 총무이사



홍석례 기획이사



이정주 재무이사



이영진 교육자격이사



이성환 작가제도이사



김만배 홍보이사



김경환 미래IT이사



이동기 4차산업발전
추진이사



안규석 대구지회장



문달순 광주지회장



임홍철 충남지회장



석식



최완식 경북지회장



사무처 임향미차장



12월8일 회장단 온라인 ZOOM회의



대방어

성철현 고문 석탑산업훈장 수상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시상식 열려



석탑산업훈장 수여식



석탑산업훈장 수여식



석탑산업훈장 수여식



성철현 고문님 가족



석탑산업훈장 수여식



정옥기회장 및 기념촬영

2022년 12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성철현 본 협회 고문이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수상을 하였다. 지난 11월 4일에 수상하기로 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연기가 되어 12월 2일에 수상을 하게 되었다.

훈장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38호 훈장증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성철현 귀하는 소상공업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 합니다.

석탑산업훈장 2022년 11월 4일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이 중을 산업훈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수상식에는 성철현 고문의 가족들과 정옥기 회장, 한장훈 기획위원장, 성덕현 재무위원장, 임웅재(전 인천지회장), 이혜승 프로사진봉사단 단장이 축하를 하였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이혜승 프로사진봉사단 단장〉

2022년도 제30차 서울특별시지회 대의원 정기총회

12월 16일 금요일 사진회관에서 열려



단체사진



총회모습



총회모습



총회모습



회원선물

이경희 지회장은 16대 집행부와 함께 고·자문, 임원, 지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내빈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상, 개회사, 격려사, 축사, 기념 촬영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경희 지회장은 16대 집행부와 함께 고·자문, 임원, 지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내빈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상, 개회사, 격려사, 축사, 기념 촬영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안건심의

제1호 안건 : 제29차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록 인준에 관한 건

제2호 안건 : 2022년도 사업 및 결산 안 승인에 관한 건

제3호 안건 : 제17대 서울특별시 지회 선거직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2023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안건 : 기타안건

이경희 지회장은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며 회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참가한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이성환** 작가제도 이사〉

기획연재 [울산광역시지회]

다둥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展

제4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김하영)는 사진작가의 시각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 기여 하고자 “다둥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전”이라는 주제로 제4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15일 오후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 개막식 행사에는 모델로 참여한 다둥이 가족들과 방인섭 울산시의원, 문화예술과 박영란 문예총괄담당사무관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전을 보내 전시회 개최를 격려했다.

김하영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사진인들 모두가 긴 터널에 갇힌 느낌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희망을 만드는 일을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준비하였다.” “한 장의 사진에 가족애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회원들의 스튜디오에서 다둥이가정

의 사랑, 기쁨, 행복 등을 표현해 보았다”라며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함께하는 가족사진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옥기 협회장을 대신하여 축사에 나선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은 “가족문화 형성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둥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 전을 준비하신 울산지회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명받았다.” “소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능을 활용하여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여 울산시민에게 소중하고 멋진 추억과 행복을 남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인사말과 축사를 마치고, 참여작가와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을 끝으로 개막식 행사를 마쳤다.

〈글 · 사진 울산지회 주재기자 최석현〉



인사말을 하는 김하영
울산지회장



사회를 보는 김태만사무국장



정옥기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는 박남규위원장



축사를 하는 방인섭
울산시의원



사진전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컷팅식



사진전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 관람

다동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展

새로운 가족사진 시장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발판으로 삼자

총 18가구 다동이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70여 작품 속에 다동이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낸 금번 제4회 울산광역시 지회 회원전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0,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해내었습니다. 금년에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18가정의 다동이 가족 사진전이라는 큰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3개 지부가 모두 분담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사무를 총괄하였던 김태만 사무국장, 격려로 힘이 되어 주었던 고문님과 자문님, 지회 감사이면서도 솔선수범하여 촬영 일정을 챙겨주었던 감사님, 지부를 잘 이끌어 주었던 지부 임원들, 그리고 촬영이 있을 때 참여하여 함께 하였던 작가님들. 이렇게 많은 분의 힘들이 모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다동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 전은 이전과 다르게 한 가정당 여러 개의 다양한 액자로 구성되어 스토리가 있는 가족사진 전이 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동이가정 사진전을 통해 울산광역시에 우리 단체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가족사진의 새 지평을 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 삼아 새로운 가족사진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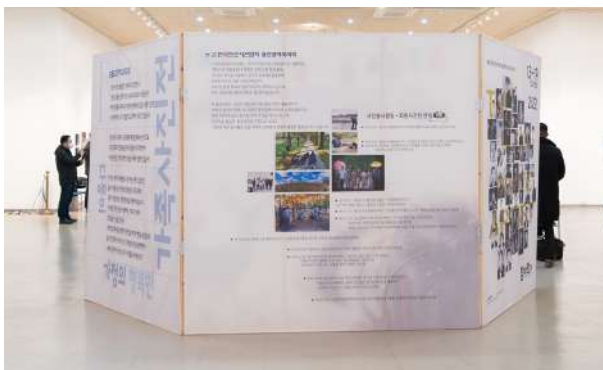
〈글. 울산지회장 김하영〉



사진전을 관람하는 내방객



참여작가소개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사진전 홍보게시판



단체기념촬영

부산지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지회장취임식

12월 14일 연산동 더파티 아이(목화점) 뷔페에서 열려



총회모습



부산지회장 박용주

부산지회는 지난 12월 14일 연산동 더파티아이 목화점 뷔페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 및 지회장취임식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박종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2년 10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하고, 2022년도 결산 승인과 27대 감사로 김영식, 김선아 회원을 선출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확정했다.

이어서 거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회원에 대한 협회장 표창 수여가 있었다. 남구지부 김순중 회원님, 해운대지부 이광호 회원님이 수상하였다. 다음 순서로 박용주 부산지회장의 인준장을 권용옥 차기 협회장이 수여하였다.

다음으로 박용주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부득이 연임을 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산지회 고문, 자문님들과 임원, 각 지부장님과 회원님들 덕분에 행복했었다. 내년에는 더욱더 견고한 부산지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꽃길만 걷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용옥 차기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올해 여수

국제세미나가 부산지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계속해서 부산사진앨범협동조합의 김자옥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통하여 “여기에 계시는 많은 회원님의 도움으로 부산사진앨범협동조합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회원님께 앞으로도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축사에 갈음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정태민 인천광역시 자매지회장은 “부산을 8번 정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지회장의 지위를 내려놓지만, 자매의 정을 계속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꾸준히 지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박병선 회원을 자문으로 위촉하는 위촉패 전달과 부산지회 임원 인준장 전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글. 사진 : 강영동 부산주재기자〉



권용옥 차기 회장 격려사



권용옥 차기회장이 부산지회장에게
인준장 수여



격려금 전달



권용옥 차기회장의 표창패 수여



위촉패 전달



단체사진

광주광역시지회 소식

2022년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문달순)가 2022년 12월 20일 디자 인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1부 정기총회 시간에는 호남권연수대회 촬영 시상에 이어 2022년 회무보고와 감사보고, 재무보고에 이어 지회 고문 추대 연령을 지회장 퇴임 후 자문으로 위촉하고, 70세가 되는 해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 호남권역 부회장에 김정현 대표를, 18대 지회장을 역임한 문달순 대표를 중앙이사로서, 17대 지회장을 역임한 홍석례 이사를 지회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19대 지회를 이끌어 갈 임원으로 지회장에 153스튜디오 이성열 대표, 부회장에 이영범(진경스튜디오), 김정원(인스튜디오), 감사에 백양인(백광스튜디오), 천설총(예맥스튜디오)이 임명되었다.

윤병선 차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지회장 이, 취임식에서 이영범(진경스튜디오) 회원에 대한 협회장 표창과 조경훈(클래식 스튜디오)회원에 대한 광주지회장 표창패가 수여되었고, 광주지회와 자매 지회인 대구지회 안규석 지회장께 우정패가 전달되었다.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부기관의 표창장 전달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 표창에 채만수(비앤비스튜디오) 전시기획위원장이, 정무창 광주광역시 의회의장 표창에 문달순(포토아일랜드) 지회장이, 신열우 소방청장 표창에 18대 이성열 사무국장이 영예를 안았다.

시상에 이어 진행된 18대 문달순 지회장은 “인상사진전의 성공적인 진행과 ‘광주광역시 사진문화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회원분들의 이해와 격려 덕분에 행복한 2년을 보내고 퇴임하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이임사가 이어졌다.

19대 이성열 신임 지회장은 “한때 어려움이 많았던 지회를 고문님들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가 라면 서운할 정도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지회가 되었다. 집행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지회가 아니라 회원 각자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임사 이어졌다.

자매 지회인 대구지회 안규석 지회장의 축사와 단체 기념 촬영으로 이, 취임식을 마쳤다.

한편 4번의 인상사진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사진:조광곤, 글:윤병선 사무국장〉



문달순 18대 지회장



정기총회



선거관리위원장-정제식중앙원로자문



이임사-문달순 18대 지회장



취임사-이성열 19대 지회장



지회기 이양



지회장 인준장 전달-이성열



축사-안규석 대구지회장



우정패-대구지회 안규석지회장



감사보고-이정온



고문 추대패-홍석례



국회의원 표창
채만수 전시기획위원장



채만수 전시기획위
원장 표창-이병훈
국회의원



소방청장 표창-이성열 사무국장



광주광역시의회 표창-문달순 18대 지회장



중앙회장 표창-이영범



호남권철영대회 시상



단체촬영

경기지회 제34대.35대 지회장 이취임식

2022년 12월 18일 오후6시 수원월드컵 경기장 컨벤션 홀에서 열려



이임 경기지 회장 최진선 | 취임 경기지 회장 이정주 | 차기 협회장 권용욱 | 경기앨범조합 이사장 이봉희 | 울산지회장 김하영 | 협회장상 수여 | 경기지회기 인수



경기지회 의사봉 전달 | 경기지회장 인준장 수여



경기지회 고문추대패 전달 | 경기지회 임원



경기지회 이,취임식 단체사진

경기지회(지회장 최진선)는 김남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 34대.35대 지회장 이취임식을 진행 하였다. 손무수 명예 지회장의 내 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아래의 순서로 진행 이 되었다.

- ▶윤리강령 선서(김기태 부지회장)
- ▶권용욱 협회장 표창 (이희춘, 이병덕, 최행완)
- ▶34대 최진선 지회장의 이임사(재직 공로패 전달)
- ▶35대 이정주 지회장의 취임선서
- ▶39대 권용욱 협회장으로부터 지회기 이양
- ▶35대 이정주 지회장 취임사
- ▶권용욱 차기 회장 인준장 수여(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 ▶35대 이정주 지회장 경기지회 임원 임명장 수여
 - 부지회장 : 신병호, 이한순, 김기태, 이창준
 - 사무국장 : 김남기
 - 재무국장 : 최행완
 - 운영위원 : 배공자, 김성겸, 조기호, 윤상진
 - 주재기자 : 김영철

- ▶손무수 고문 추대패 전달
- ▶격려사 : 제39대 권용욱 협회장
- ▶축 사 : 이봉희 경기도사진앨범조합 이사장, 김하영 울산광역시지회장(자매지회)
- ▶단체기념촬영

최진선 34대 지회장은 이임사에서 4년간 경기지회장으로 회원과 함께한 날을 돌아보며 즐거운 날과 아쉬운 날을 상상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신임 이정주 35대 지회장은 내가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을 하며 취임사를 하였다.

경기지회 이취임식에는 한파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외빈 및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취임식 행사를 마쳤다.

〈글,사진: 경기지회 주재기자 김영철〉

순천시지부 사진문화활성화에 관한조례안 통과



이복남 순천시의원

- 소속정당:무소속
- 선거구: 라선거구 (향 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
- 2022.07~ 제9대 순천시의회 의원
- 제8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2018.07~2022.06 제8대 순천시의회 의원
- 2014.07~2018.06 제7대 순천시의회 의원
- 매산여고,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6,7,8,9대 순천시의회 의원
- 8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 현)순천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순천시의회 포스트코로나 연구모임 회장
- 전)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영주 작가제도의원, 이복남의원, 박복근자문, 박영순지부장



박복근 자문 대담



박복근 자문의 이복남의원 사무실 방문



박영순 순천지부장이 이복남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이복남의원 간담회



순천시 사진문화활성화에 관한조례안이 2022년 3월에 통과되었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 박영순 순천지부장, 박복근 중앙자문, 김영주 작가제도의원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복남 순천시 의원은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

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과 순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박영순 순천지부장은 박복근 자문과 김영주 지부 고문의 도움으로 사진인의 권익과 사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경기지회 구리.남양주지부 소식

가평군 북면 행복마을 어르신 사진 촬영 봉사활동

어르신들의 환한 모습이 사진으로 담겼다



07 단체사진.jpg



촬영하는 윤슬김영훈 작가



행사장 풍경



한복



메이크업



메이크업



동영상 촬영하는 현창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구리·남양주 김영훈 지부장은 2022년 12월 7일 가평군 북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북면 행복마을 관리사무소주최로 어르신들 프로필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대한노인회 구리지회, 구리문화원, 한국사진방송에서 후원하였으며 액자 제작업체인 '하이프레이'에서 협찬하였다.

봉사에는 김영훈 작가, 박현정 사진작가, 이효성 사진작가, 현창호 사진작가, 이선아 스타일리스트, 김영주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도연 메이크업 아티스트등 7명이 봉사를 하였다.

김영훈 작가(윤슬 사진 촬영연구소)는 가평군 북면 행복마을 관내 남녀 30여 명의 어르신에게 우아한 한복을 곱

게 입고, 젊고 화사한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메이크업과 의상을 입고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에 만족하여 봉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나누어 웃음꽃을 피웠다.

행사를 주최한 북면 행복마을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윤슬 김영훈 작가는 추후에도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하여 지역발전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사진에 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이효성** 사진작가〉